

“선진국형 미래도시 순천”...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

정원·콘텐츠 융합 비전 제시 3대 특구 및 그린바이오 추진 선명해진 글로벌 문화산업 비전 “생태로 도시 경제 지형 바뀌”

순천시가 ‘문화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정원박람회를 성료한 이후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조성 △4대 특구 중 3개 특구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품격 높은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1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의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순천시의 문화산업 메카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쇼와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상영회 등 다양한 콘텐츠는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든 행사였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오전그린광장을 찾았다. 특히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유·

청소년 및 청·장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행사에는 세계적인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 참석해 순천시와의 우호적 교류를 약속했으며, 웹툰 분야의 앵커 기업 ‘케나즈’와 ‘오노코리아’는 본사를 순천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 10월 중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또한 우수한 창작 환경을 갖춘 순천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30여 개의 콘텐츠 기업을 적극 유치해, 원도심을 콘텐츠 창작·제작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지난 2023년 정원박람회 이후 약 5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순천만국가정원을 올해 4월 새롭게 선보였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콘셉트로 공개된 이번 정원은 스페이스허브, 스페이스브릿지 등 독창적인 콘텐츠와 웹툰 ‘유미의 세포들’, EBS 애니메이션 ‘두다다쿵’ 등의 인기 캐릭터들이 결합된 형태로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재개장 이후 새롭게 변화한 순천만국가정원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졌고, 7개월 동안 약 37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흥행을 이어나갔다.

순천시는 정원에서 발생한 수익인 ‘가든머니’를 통해 시민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또 2024년은 정원박람회 이후 조성된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각각 저류지와 도로를 정원으로 변모시키는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두 공간은 순천의 도시 철학을 반영하며, 생태와 사람 중심의 도시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은 올해 7월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수상했으며, 11월에는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특히 오전그린광장은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운동, 피크닉, 맨발걷기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주

말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청 소속 남수현 선수의 올림픽 응원전을 비롯해 ‘7080 가든락 페스티벌’, ‘비어페스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댕댕런 페스티벌’, ‘반려동물 문화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서울에는 등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 현실에서 방황하던 청년들에게 순천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소득 4만 불 시대에 젊은이들에게는 아깝지 않은 청춘을, 중·노년층에게는 더욱 든든한 도시로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특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 특구,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에 연이어 선정되며, 지방 분권을 위한 4대 특구 중 3개 특구를 모두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지역 기업에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모집 여수시, 서비스 개선·만족도 제고

여수시가 오는 29일까지 1개월간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평가단 모집인원은 성인 80명, 중고등학생 20명 등 총 100명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 관련자나 가족은 제외된다.

선발된 시민평가단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 3개 회사(여수여객, 동양교통, 오동운수) 62개 노선 중 회사별로 2회씩 월 6회 승차해 운전자 태도, 준법 운행, 차량 관리 등 3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양행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1회당 실비 1만원 지급되며, 학생의 경우에는 1회당 실비 5000원과 봉사활동 1시간이 인정된다.

신청 방법은 시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과(교통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061-659-41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체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금 지급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업체 간 경쟁 유도로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성료 보성군, 전통월척어 수리 등 호응

보성군은 지난 15일 다량체육관에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제16회 보성군장애인한마음대축제’를 성료했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1부 기념행사와 2부 어울림 축제로 나눠 진행됐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화려한 난타 공연을 시작해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군수 표창 및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다. 2부 어울림 축제에서는 흥겨운 분위기를 북돋을 △초청 가수 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무대와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화합하고자 추진된 전남 장애인 전통 보조기기 수리센터의 전통월척어 수리,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의 봉어빵 굽기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보성예비군지역대의 안전관리 △여성소대의 배식 봉사 △별교계척차인회의 다례 봉사 △보성여성자원봉사회의 질서유지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의 교통관리 △동심풍선아트와 풍선아트 △보성소방서 구급차 지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따스한 손길이 행사를 더욱 빛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지난 15일 옥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랑애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옥룡면, ‘사랑애 김장 나눔행사’ 봉사

60세대, 25개 경로당에 전달

광양시 옥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사랑애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사랑애 김장 나눔행사’는 옥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해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0

명은 행사 전날인 14일 김장재료 및 양념 준비, 행사장 청소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장과 포장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 150포기는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60세대와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 25곳에 전달됐다.

옥룡면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물가 상승으로 김장은 엄두를 못 냈는데 일찍

새 김치를 맛볼 수 있어서 고맙다. 맛있게 잘 먹겠다”고 말했다.

허광영 민간위원장과 박성에 주민자치위원장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적은 양이지만 김장이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숙혜 옥룡면장은 “김장부터 배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광주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은 지난 15일 고흥군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현장체험 학습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조대정 고흥군 부군수, 최승복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체험 학습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수련원 이용객의 고흥군 관광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해양수련원 시설 이용, 급식 식재료 납품 등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분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대정 고흥군 부군수는 “이번 업무협

약을 통해 우리군을 찾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나은 배움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도화면에 위치한 광주시 교육청 산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연간 1만6000여명의 학생들과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어, 이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 광양시, 인기답례품 추가 증정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가 진행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 대상은 광양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다.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 외에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광양시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NH농협을 통해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고향사랑e음’을 통해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부가 완료되면 이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 인원은 총 60명으로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뿐만 아니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제도다. 더 많은 시민이 광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부자도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받아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를 제외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및 지역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게 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